



[산업] SK종합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친환경 생태계 구축 06



Life

[라이프] 노브랜드 버거 신세계푸드 아이콘 부상 11



“5년 전 미환급 세금까지... ‘삼점삼’ 쓰면 돈이 나와요”

AI 기업사

자비스엔빌런스 김범섭 대표

5년 간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세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고 이를 돌려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 말 기준 회원 수는 95만3646명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삼점삼’을 선보인 인공지능(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엔빌런스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지 10여 개월 만에 고객에게 돌려준 누적 환급액도 325억원을 기록했다.

AI 기술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6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성장세를 그리면서, 지난해 손익분기점(BEP)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김범섭 자비스엔빌런스 대표는 7일 “고객이 돈을 내야 우리 서비스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부터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기업 대상 AI 경리 ‘자비스’를 먼저 선보였다. B2B(기업간 거래) 서비스는 연 50% 성장세를 보였지만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서, 시장 플레이어가 없는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시장에 진출했다”며 “삼점삼은 월 30%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5:1 정도로 무게 중심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137%가 늘어난 35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하루에 10만명 이상 서비스에 가입해 기대를 넘어선 성과를 기록했다.



김범섭 자비스엔빌런스 대표가 강남 본사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삼점삼’과 ‘자비스’의 서비스와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손진영 기자 son@

미환급 세금 조회 서비스 ‘삼점삼’ 10개월만에 누적 환급액 325억 환급 어려운 프리랜서·알바생 타깃

인공지능 경리 서비스 ‘자비스’ 1500개 유료 계정·4만 이용자 보유 온라인으로 간편·운영비 절감 강점

“삼점삼은 프리랜서들이 주요 타깃인데, 알바분들이 더 많이 가입해요. 편의점 알바로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원천소득세 3.3%를 제외하고 97만 원을 지급해요. 1년 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세금이 33만원인데, 인적 공제를 따지면 전액 환급받는 분들도 계세요. 근로소득자들은 잠정적인 세금을 먼저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데, 알바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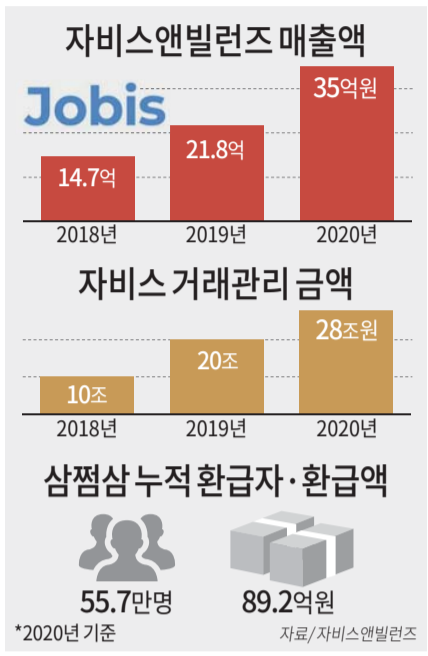
이용자들이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웠고 전략은 주효했다.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해주는데 이용자들이 평균 13만원 환급을 받아요. 400만원을 환급받은 분이 있었고, 100만원 넘게 받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환급받은 돈으로 모니터나 옷을 샀다는 리뷰들을 올리면서 입소문으로 이용자들이 점점 늘었어요.”

무료 가입만으로도 자신이 얼마까지 세금을 환급받는 지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환급받는 과정을 대신 해주게 되면 환급액의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복잡하거나 서류를 내는 게 어렵고 잘못 뒀을 때 수정 신고가 어려워요. 저희가 3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니 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결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어요. 또 회사를 이직할 때 12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쉬었다가 다음해 5월 다른 회사를 다니면 연말 정산을 한번 건너뛰게 되요.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죠.”

올해 하반기에는 최근 5년간 놓친 연말정산을 환급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또 향후 퇴직금에



2015년 자비스엔빌런스를 창업한 것. “제가 석사과정 1년차 때 영수증을 입력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어요. 연구비가 정부 과제로 내려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등 증빙자료 영수증을 모으고 붙이다 보니 대학원에 흥미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KT에서 입사를 했을 때도 팀내 경리가 없어지다 보니 신입사원에게 같은 일이 떨어졌어요.”

2009년 첫 창업을 했을 때 세무사가 영수증을 붙여서 1달에 한번씩 가져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만드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인데 풀로 영수증을 붙이는 일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리멤버’에서 100만장의 명함을 직접 입력해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나서 영수증을 입력해줘야겠다 생각해 ‘자비스’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한 세무회계 사무실을 고객으로 시작한 서비스는 현재 유료 계정 1500개와 무료 계정 3~4만개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영수증 관리는 물론 회사의 금융정보를 한번에 관리하고 급여관리, 비용내역 자동 회계처리 등을 제공한다.

자비스의 서비스는 회사 규모에 따라 월 3만3000원에서 10만원선이다. “세무사분들이 직접 이동하며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고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니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미래가치를 내다본 에이티엔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9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리멤버도 그렇고 저희 서비스도 내부에서는 ‘비가역적 혁신’으로 평가해요. 카카오톡을 쓰다가 안 쓰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한번 세금 신고를 해서 받아보면 안 쓰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에요. ‘삼점삼’ 서비스를 쓰면 돈이 나온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실천해나갈 생각이예요.”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뉴로핏, 뇌영상 소프트웨어 유럽 CE 인증 획득

글로벌 진출 박차

뇌질환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은 뇌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NEUROPHET AQUA)’의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뉴로핏 아쿠아’는 환자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할해 뇌 위축 정도 등 상태를 객관적인 레포트로 도출하는 뇌 질환 분석 솔루션이다. 핵심 기술인 AI

기반 ‘뉴로핏 세그멘트’를 ‘뉴로핏 아쿠아’ 솔루션에 적용해, 인종,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1분 이내에 MRI 분할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뉴로핏은 이번 CE 획득으로 유럽 시장에 ‘뉴로핏 아쿠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시장조사기관 윌 디벨로먼트에 따르면 세계 의료 영상용 인공지능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36% 성장해 2025년 29억 달러(약 3조2625억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조건이 까다로운 유럽 CE 인증 획득을 통해 아쿠아의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입증했다”며 “유럽 의료기관과의 현지 테스트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로핏은 지난 3월 아쿠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쿠아 2.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8 | 해질 / 19:01

4월 8일 (목)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5 ~ 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3/17, 동두천 4/18, 가평 3/17, 파주 3/17, 서울 5/17, 양평 3/17, 수원 6/16, 용인 6/16, 평택 3/17, 백령도 6/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4·7 재보궐에 일본 언론도 관심...“대선 전초전”
▲트럼프, 억만장자 순위 300계단 추락...4년만에 1조원 사라져 /사진 뉴시스

▲日도시바, 23조원에 영국 사모펀드에 인수되나
▲브라질, 하루 코로나19 사망 4000명 넘어서



▲엘런 머 재부 “빠른 회복 기대...내년 완전 고용 복귀 희망”
▲베이조스 아마존 CEO “법인세율 인상 지지...비용 부담 가능”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